

사상 최대 실적 송중욱 광주은행장 연임

광주은행 창립 후 첫 자행 출신 행장...경영 능력 인정 받아
고객중심 현장 경영·디지털 금융 혁신·사회공헌 활발

광주은행 송중욱(사진) 행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광주은행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송중욱 은행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현 송중욱 광주은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7년 9월 자행 출신 최초로 제13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된 송중욱 은행장은 1년 4개월동안 고객중심의 현장 경영을 추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8년 3분기 말 기준 당기순이익 1414억원, BIS 자기자본비율 16.31%, 고정이익여신 0.51% 등 각종 지표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두며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듭 발표했다.

탁월한 능력 외에도 광주·전남 지역 점유율 확대와 수도권 공략 영업, 선도적인 디지털화 추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지역민은 물론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호평이 연임 확정에 힘을 실었다.

송 행장 취임 후 광주은행은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지역 최고 은행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랑카드'와 같은 지역특화상품 출시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 신규 및 재계약 등에 심혈을 기울이며 지역 점유율을 확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도권 영업을 펼치며 수도권과 광주·전남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뤘다.

다양한 비대면 상품 개발과 모바일웹뱅크 실시, 스마트뱅크 리뉴얼 등을 통해 디



지털금융의 혁신을 이끌기도 했다.

사회공헌 활동과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마다 전체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우리 지역에 할당 선발하는 지역인재 채

용, 광주화투와 민화전, KJ원더랜드, 금융체험박물관 등을 통한 지역 문화 창달에도 앞장섰다.

송중욱 은행장은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중책을 안겨주신 지역민과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기대와 성원을 가슴 깊이 새겨 자행 출신 은행장으로서 광주은행의 100년 역사를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중소기업·중서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발전하며 지역민이 주인인 광주은행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JB금융지주와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그룹시너지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중욱 은행장은 1962년생으로 순천고와 전남대,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했으며 금호동지점장과 서울지점장을 거쳐 수도권 영업부행장, 영업총괄 부행장을 지냈다. 탁월한 영업성과와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7년 9월 자행출신 최초로 제13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4.71 (+39.44) 금리(국고채 3년) 1.81 (0.00)
↑ 코스닥 679.74 (+11.25) ↓ 환율(USD) 1122.10 (-2.00)



반도건설 광주 첫 '남구 반도유보라' 분양

첨단인공지능 ICT 도입
월산동에 11개동 889가구

반도건설이 오는 11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견본주택을 열고 '남구 반도유보라'〈조감도〉에 대한 분양에 나선다. 반도건설이 광주에 공급하는 첫 브랜드 아파트로, 입지여건이 우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7층 11개동(전용면적 35~84㎡ 889가구) 규모로 건설되며 623가구(전용면적 59~84㎡)는 일반 공급된다. 입주하는 오는 2021년 9월 예정이다.

남구 반도유보라는 반도건설과 KT의 'AI 아파트 사업 제휴 협약'에 따라 첨단 인공지능 ICT 서비스를 도입해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자들은 조명, 난방 등 '빌트인 기기'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호출, 공지사항 조회 등 공용부 기능까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단지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 35~84㎡ 중호형 평형으로만 구성되며 곳곳에 선 큰광장, 갤러리정원 등 다양한 테마의 쉽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 74㎡의 경우 주부들의 동선을 고

려한 'ㄷ' 자형 주방설계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했고 전용 84㎡(B형)은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분리·통합형으로 나눠 가족 구성원에 따라 활용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전용 84㎡(C형)도 현관·주방·알파룸 등에 수납공간이 제공되고 넓은 침실공간(침실 1·2)은 생활 방식에 따라 침실이나 서재, 작업실, 놀이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구 반도유보라는 단지 주변으로 양동시장,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해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월드컵경기장, 예술의거리 등 문화시설과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등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교통 여건도 단지 바로 앞에 광주 1호선 돌고개역이 위치해 있고 광주역, 광주송정역(KTX-SRT),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분양가가 3.3㎡당 평균 10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으로, 회사측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16일)을 시작으로 17~18일 1·2순위 공급에 들어간다.

견본주택은 서구 쌍촌동 982-2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문의(1800-0086)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마트 30대 그룹 계열사 중 종업원수 가장 많이 늘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이마트가 30대 그룹 계열사 중 최근 5년간 종업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기업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자료를 토대로 '2012~2017년 30대 그룹의 종업원 300명 이상 계열사 종업원 수'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1만4246명)였다.

이마트 종업원 수는 2012년 1만6736명에서 2017년 3만982명으로 5년 동안 85% 증가했다.

이마트에 이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종업원 수가 8007명 늘어 2위를 차지했고 현대차(7488명), CJ CGV(5646명), 농협파트너스(5270명) 등이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작년 3분기 가계 여유자금 전년 동기보다 밀돌아

작년 3분기 서울 등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인 가운데 가계가 주택 구입에 나서느라 여유자금이 예년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대신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 투자가 늘어나며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6년 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여유 자금을 미리 확보해놓음에도 투자를 미루면서 기업의 순자금 조달 규모는 전 분기와 견줘 반토막이 됐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작년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11조원이었다.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지만 동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예년보다 낮다. 2009~2017년 3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 규모는 평균 13조6000억원이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주체가 예금, 채권, 보험·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자금 조달)을 뺀 금액이다.

가계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예년을 밑돈 것은 가계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유돈을 쓰고 대출을 받은 결과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주택 투자 증가세가 2~3년 높았다가 둔화했지만 예년과 비교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현상 효성나눔봉사단장(총괄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효성 신입사원들이 8일 서울 정릉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펼쳤다. <효성 제공>

효성 신입사원들 '사랑의 연탄 1만장 나눔 봉사'

조현상 봉사단장도 참여

효성 신입사원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으로 첫 대의 활동을 시작했다.

9일 효성에 따르면 신입사원 200여명은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 이웃들에게 연탄 1만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현상 효성나눔봉사단장(총괄사장)과 경인지역 임원들도

신입사원들과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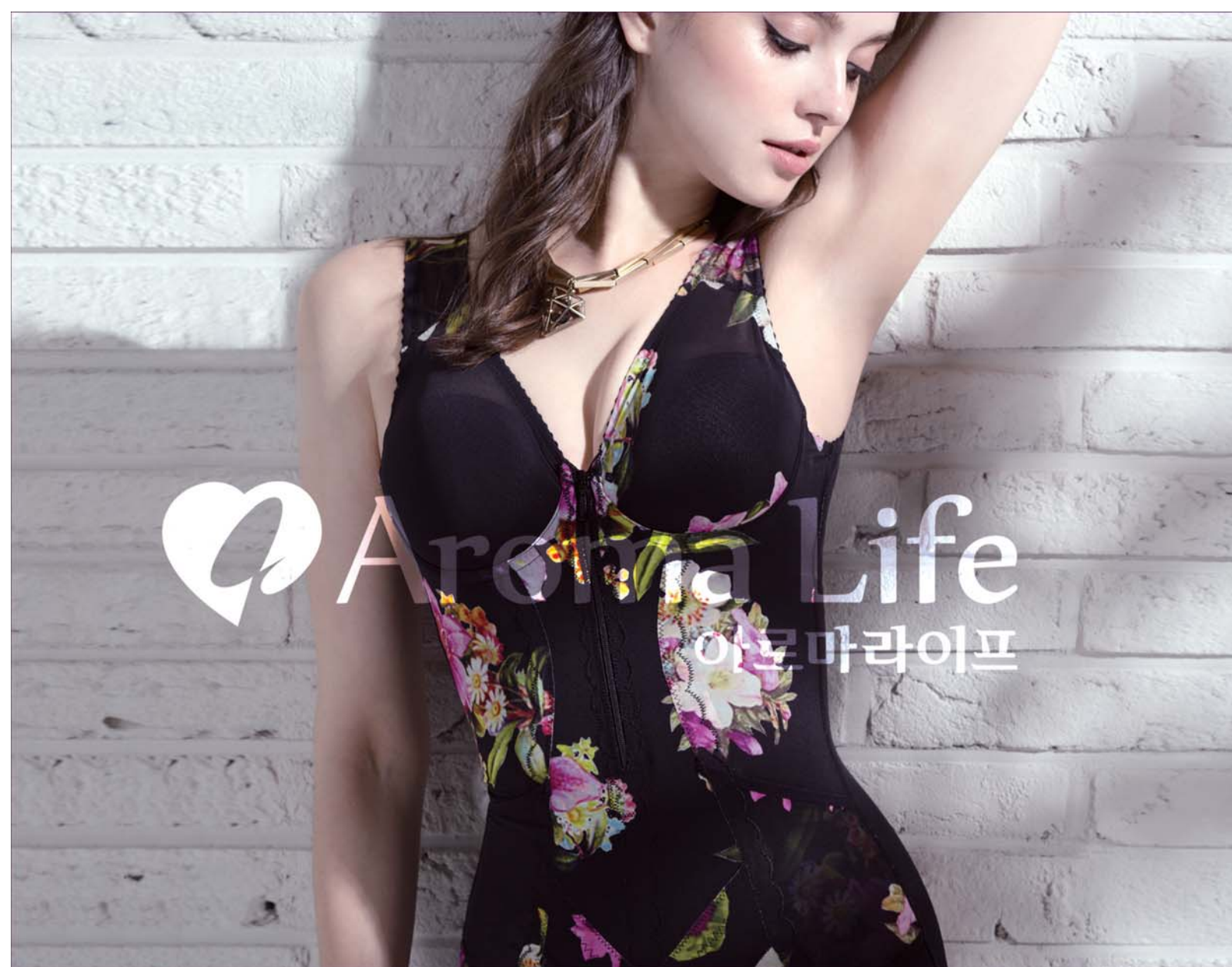
조 단장은 "연탄이 작고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신입사원들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땅이 얼지 않도록 낙엽을 덮는

낙엽분토작업과 배수로 정리를, 2017년에는 독거노인들을 찾아 문풍지를 붙이는 방풍작업을 실시하고 청소를 했다.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신입사원 입문 교육 기간에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입사와 동시에 사회공헌 의식을 함양하고 효성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책임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